

광양시, '관광협력센터' 조성 가속도

문체부 공모 선정 10억 투입 버스터미널 인근 건립

관광안내소·판매 기능 접목...내년 사업 완료 계획

광양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관광협력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관광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양시는 13일 "문체부 주관 '지역관광협력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광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발전 공유기반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원을 투자해 올해 안으로 관광협력센터 설계를 공모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마동 버스터미널 부근 광양시 관광안내소 부지에 건립하는 '관광협력센터'에는 관광안내소 기능에 지역특산물 판매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회의공간과 개방형 사무공간, 미니카페 등이 들어선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광양시가 올해 관광두레에 신규지역으로 선정되고 관광진흥협의회 구성과 민선 7기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발전 의지를 높게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 사업 대상 예정지인 광양시 관광안

내소는 햇빛광양시티투어 출발지로 서중마터미널, 중마시장, 이순신터미널 등과 연계해 있고 이순신대교, 순천시와 여수시 등 지역관광 거점지와 연계 편의성 등의 관광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광양시는 종합관광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관광안내소를 운영해 왔지만 관광정보 획득 채널이 다양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플랫폼 구축과 지역관광 협업 체계화에는 한계가 따랐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적화된 여행 정보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양관광협의회, 관광두레협의회, 지역관광사업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협업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광양관광 DMO 조직의 설립

을 통해 주민 주도 지역관광사업체 발굴과 창업, 지역관광 신규사업 발굴, 관광사업체 활성화 등으로 민·관 관광 거버넌스 실현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선주 관광마케팅팀장은 "광양시 관광을 지역민과 함께 진단하고 발전 방향 고민과 실행을 함께 하는 광양의 실질적 관광협업공간이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방형 공간에 관광을 이끌어 갈 청년, 관광사업자 등 광양시민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팀장은 "관광협력센터를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해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에게 이로운 관광이 되도록 마중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광양=허선식기자



구충군 화순군수가 최근 만연산 생태 숲 공원에서 열린 '로컬 팜마켓' 개장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농특산물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 '로컬 팜마켓' 판로 확대 주목

1주년 기념행사...17개 농가·33개 품목 무인 판매

화순 '로컬 팜마켓'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해 지역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13일 "최근 만연산 생태 숲 공원에서 귀농·귀촌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인 농특산물 무인판매장(이하 로컬 팜마켓)' 개장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만연산 생태 숲 공원에 문을 연 '로컬 팜마켓'은 귀농인의 새로운 로컬푸드 판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장 이후 17개 농가가 신선하고 안전한 33가지 품목의 로컬푸드를 무인 판매하고 있다. 화순군 로컬 팜마켓은 월평균 매출액이 500여만원으로 귀농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임정 귀농인 양옥미(화순읍) 씨는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만연산 생태 숲 공원에 판매장이 있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

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박병기)가 운영·관리하는 로컬 팜마켓에서는 채소, 잡곡, 작두콩, 유정란, 꿀, 아로니아 등 제철마다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365일 만날 수 있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구충군 군수는 "무인 로컬 팜마켓이 귀농인의 소득 창출뿐 아니라 귀농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화순군의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알리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군수는 "화순에서 먼저 살아 보기, 귀농인 연락처 적음 지원 등 다양한 귀농 정책을 펼쳐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인의 영농 정착률을 높여겠다"고 덧붙였다. /화순=이병철기자

여수시 올해 첫 모내기

여수시는 13일 "최근 소라면 대곡마을 친환경유기단지에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열고 풍년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농어촌공사 김진환 순천광양여수지사장, 박종택 농협여수시지부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크게 우렁이 살포와 모내기로 진행됐다.

권 시장은 우렁이를 살포 하고 승용이앙기에 탑승해 모내기를 도왔다. 또 농업인의 고충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모내기에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수매품종인 신동진 벼가 사용됐다. 이번에 모내기한 벼는 가을에 수확해 지역 조·중·고교 급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화창한 날씨를 보니 풍년이 예상된다"며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제16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성료 제16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가 최근 장흥군 안양면 수문항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이번 축제는 70% 이상이 외지 관광객으로 키조개 생산여가의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관광객 수와 음식 판매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흥군 제공

장성군, 야생동물 주민 피해 최소화 총력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1년간 집중 활동

장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지난 8일부터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20명 이내의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장성군

이 조직했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7일까지 1년이다.

장성군은 국립공원과 군사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야면적이 군 전체의 60%에 이른다. 특히 2017년 2천400여만원 규모였던 야생동물 피해액이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오른 5천400여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대

책 수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성군은 2010년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이 증가한 데 따라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야생동물 포획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의 포획 이외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구제 활동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기관 이송,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 단속 등 야생동물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분묘의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생동물의 출몰로 신민의 위험을 느껴거나 농작물·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성군청 담당부서에 전화(061-390-7331)해 신고하면 된다. /장성=김문태기자

담양, 농업·귀농인 상생 '고구마 심기'

휴경지 2천600㎡ 시범포 재배

담양군은 최근 농업인과 귀농인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귀농인 단체 회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고구마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와 담양군 귀농귀촌협의회를 포함한 5개 단체 임원과 회원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휴경지 2천600㎡를 고구마 소득 작목 확대 시범포로 탈바꿈시켰다.

한국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 한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농산물이 고구마의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귀농인과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했

다"며 "무안군의 고구마 종순 재배단지 '베니하루카'를 벤치마킹 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달 17일 개최한 담양관광호텔에서 '담양군 농업인학습단체·담양군귀농·귀촌협의회 멘토링 협약식' 이후 농업인과 귀농인간 상호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 다양한 만남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착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귀농한 사람은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농업인상담소를 통해 귀농 관련 정책과 다양한 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문의 061-380-3430) /담양=정승규기자

오피스텔 [급매]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주거.사무실가능 / 방 2개 가능) 23평
- 전체 올수리, 내부 깨끗
- 보 500만 월 50만 (노후대비)
- ▶ 시세 1억3천
- 급매 8천400만 (융3천만)

☎ 062-382-5500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광산구 산정농협 뒷 1분 (코너)
- 1층 (상가)
-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매가 8억5천만 (융2억5천, 보 1억)

062-382-5500 010-6670-9800

경매 교육

- ① 경매 기초 실전반
- ② 실전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 ③ 사무실 함께 쓰실분 (전문반) 주 1회 스터디 (기초 실전반, 특별반) → 매주 개강

법률경매

- (주)대신경매
1. 상무지구 7층 중 6층 (전용 60평)
 - ▶ 감정가 4억 → 최저가 1억4천6백
 2. 광산구 신기동 (원룸빌딩) (토 110평, 건171평)
 - ▶ 감정가 8억1천7백 → 최저가 5억7천2백
 3.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 감정가 2억4천 → 최저가 8천8백만
 4. 북구 용봉동 (다가구원룸) (토 80평, 건165평)
 - ▶ 감정가 5억9천만 → 최저가 4억1천5백만
 5. 서구 농성동 (주유소) (토 246평, 건 278평)
 - ▶ 감정가 15억5천 → 최저가 15억5천

062-382-5500